

# 고통과 함께 삶의 진리에 다가간 작가들

## 고통의 해석

이창복 지음

시인 조태일(1941~1999년)은 군부 독재의 폭압에 매일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허름한 달동네 단칸방 천장에 찌그러진 술주전자를 매달아 놓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취하는 슬픈 나날을 견뎌냈다. 그렇게 시집 '국토'는 쓰여졌다.

볼프강 보르헤르트는 제2차세계대전에 참전해 부상을 입고,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이후 프랑스군의 포로가 되고, 탈출한 뒤 죽을 때까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글을 썼다.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밤에는 쥐들도 잠을 잔다'는 작품이 탄생했다.

장작은 고통이라는 말은 고통 속에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는 말과 궤를 같이 한다. 한국의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이창복



명예교수의 '고통의 해석'은 위대한 작가들이 어떻게 고통과 함께 삶의 진리에 다가갔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은 문학을 통해 인간의 고통과 존재의 의미를

탐색한다.

저자는 독일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고 완성도 높은 19개 단편을 대상으로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풀어 해친다.

또 독일 대문호들의 명작을 통해 삶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과 절망의 밑바닥에서 피어나는 숭고한 희망을 보여준다.

저자는 프란츠 카프카의 '법 앞에서'를 설명하면서 카프카가 천착한 유대인 문제

를 파고든다.

카프카는 유대인의 문제를 보편적 인류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문제로 보편화해서 인간 존재의 고통과 불안, 삶의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신의 계명을 어긴 유대인으로서 그는 무자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의 입장에서 누가 형벌을 내리는지 모르면서도 형벌에 구속되어야 하는 불안감에 살아야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카프카에게 범정이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양심의 범정이었다. 또한 카프카는 자신의 문학을 통해 '빛의 세계'로 나아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저자는 또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1947년까지 집중적으로 글을 쓴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허무주의와 패배감, 독일 방언

의 선구자 요한 페터 헤겔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준 높은 차원의 도덕 등을 설명한다.

발터 벤야민이 사랑하고, 헤르만 헤세가 극찬했던 요한 페터 헤겔은 뛰어난 자기반성을 통해 작품을 창작했다. 이를 통해 통찰과 반성을 통해서야 도달할 수 있는 깊은 도덕을 작품 속에 펼쳐 놓았다.

이처럼 위대한 작가들이 고통 속에서 글을 쓰는 이유는 "문학은 인간에 대한 박애의 전달 수단이며, 우리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자유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학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로서 부단히 현실의 부정과 싸우면서 나날이 새롭게 사는 길을 제시해준다. 이런 해답을 찾기 위해 작가들은 그토록 오랜 시간을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사·1만6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작가는 현실의 부정과 싸우면서 고통 속에서 글을 쓴다. 사진은 작가들이 기거하면서 글을 쓰는 담양 생오지 전경. 〈광주일보 자료〉

## 엄마들의 인문학 혁명이 필요한 시대

### 엄마 인문학

김경업 지음

인문학자 김경업은 부지런한 필자다. 25년간 가톨릭대에서 재직했던 그는 '책담', '인문학은 밥이다', '논변 종교를 위한 인문학' 등을 통해 인문학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그가 '엄마, 세상을 바꿉시다!'를 모토로 '엄마 인문학'을 펴냈다. '놀 틈도 없이 유대 없이 학교로, 학원으로 떠다니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엄마들이 변화하지 않고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다.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세바인(세상을 바꾸는 인문학) 인문교육연구소의 첫번째 인문학 프로젝트로 진행된 6번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역사, 예술, 철학, 정치와 경제, 문학을 넘나들며 이야기를 풀어내간다.

1강은 '왜 지금 우리는 '읽어야' 하는가?' 질문에서 시작한다. 모든 것의 맥락을 읽는 게 그 출발이다.

2강은 역사에 관한 이야기로 식민사관과 오리엔탈리즘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3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인 예술이 모티브다. 음악가와 프랑스 혁명, 랩에 담겨 있는 역사와



시대 상황, 화가가 자신을 그리는 이유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4강은 철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 헤겔 등을 소재로 '철학은 나로 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5강은 정치와 경제를 다룬다. 정치가 곧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자는 보수와 진보, 착한 경제가 가능한 지 등에 대해 강의한다. 마지막 6강은 문학이다. 친숙하지 않은 장르인 희곡이 세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하루 한편의 시를 읽는 건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지 들려준다.

인문학의 기본 정신, "모든 삶이 인간에서 출발하고 인간으로 귀결되며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책을 썼다.

강연 내용을 묶은 것으로 정제된 맛은 부족하지만 쉽게 읽힌다.

〈꿈결·1만488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국가는 강도다=아나키스트들과 자유시장주의자들 모두에게서 중요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아나키스트인 라이샌더 스푸너의 주요 사상 중 하나인 '강도국가론'을 다루고 있는 책. 스푸너의 텍스트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쓰였지만, 그 내용은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헌법과 정부의 정당성만을 문제 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상의 모든 헌법과 정부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책·1만5000원〉

▲꿈이 있는 공부=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일찍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깨우쳐 자기만의 분야를 개척해온 6명의 강사들이 욕망을 위해 몰두하는 미친 공부의 시대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준다. 독특한 이력과 매력을 지닌 강사들에게 학부모들은 매년 뜨겁게 호응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그 강연내용을 묶어 책을 펴냈다.

〈창비·9000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공동대표는 아이들이 꿈이 있는 공부에 몰두하며 행복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시사인북·1만5000원〉

▲대한민국 의료혁명=현장에서 직접 쓴 최초의 의료공급체계 혁신 일문서. 빅5 병원 중심의 의료 독과점 체제가 강화되면서 지역 의료·공공의료 붕괴되고 있는 극단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제안한다. 환자와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병원,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 실현되는 의료기관과 의료공급체계를 꿈꾸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 의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

을 모색하고 있다. 〈살림터·2만5000원〉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소설가 구병모의 두번째 단편집. 구병모는 신화와 옛이야기, 철학과 애니메이션에 이르는 참고문헌을 자기 식대로 소화하고, 비정한 현실에 집요하게 파고들어 정확한 디테일을 기입해낸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은 속독과 정독이 함께 필요한 소설이다. 촘촘한 문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여가-우리의 치부를 바로 마주하면서, 곳곳에 흩뿌려진 힌트를 차분하게 잡아내 숨겨진 알레고리를 발견하며 읽기를 추천한다.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민음사·9000원〉

## 어린이 책



▲옛돼지가 콩콩, 호박이 동동=오랜 세월 널리 사랑받아 온 옛이야기 '밭갈 할멈과 호랑이'를 독창적으로 되살린 이 작품은 남다른 활력과 해학으로 건강한 웃음을 전한다. 통쾌한 모험 속에 삶의 그늘까지 끌어안는 작가의 너른 품을 읽고 나면 호박처럼 달고 따끈한 포만감이 마음속 가득 퍼진다. 〈창비·9000원〉

한 그림책. 쥐뿔을 피해 머나먼 자유의 땅으로 떠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용감하게 모험을 떠나는 생쥐 이야기는 읽는 재미는 물론 자연스럽게 인류의 비행 역사에 대해 알게 해 준다. 〈책과콩나무·1만5000원〉

▲베드타임 매스3=짧은 이야기와 단계별 퀴즈로 구성된 스토리텔링 수학책. 3권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놀랍고 신기한 사실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수학을 온 가족이 즐기는 놀이로 만들어 준다. 아이와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답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즐기는 순간, 아이들의 수학 실력은 속속차라난다.

〈아이세움·1만2000원〉

▲두리몽실 몽계공방 : 내 꿈은 세계일주!=세상의 모든 비행기가 모이는 몽계공방에서 꼬마 경비행기 왕키의 작지만 큰 꿈을 키워나가는 이야기. 아이들에게 우정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 요소와 함께 "세상에 쓸모없이 태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드벤처 성장 애니메이션이다. 〈씨북출판·9000원〉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건너편  
오리한방, 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뚫탕, 오리 장어탕  
☎062)401-5253

**무등공인중개사**  
북구 문흥동 938-4  
주공1차 2차뜨란채아파트건너편  
아파트, 주택, 상가건물, 분양권 매매임대 전문  
대표 권덕우 ☎010-9222-3339

**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번지유의상실앞)  
부대찌개, 철판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

**아워홈테크**  
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  
한샘i제휴점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abs도어 연동문 씽크대 불박이장  
대표 김창두 ☎010-6635-7224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 (중앙로 196번길 15-16)  
예술의거리 중앙초교사거리에서  
키톨릭센터쪽 30M 이전 확장개업  
대표 임해택 ☎010-2681-311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장충동왕족발보쌈**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  
족발 소·중·대, 보쌈김치  
신속한 배달, 카드결제 가능  
☎1588-3300

**그린이용원**  
북구 양산동 오리공영이 뒤  
대표 성옥희 ☎010-3225-2735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직영,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명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시골식당**  
동구 금동 15-2 (구시청에서 병무청쪽)  
생삼겹, 오리로스, 생선매운탕, 회무침  
대표 조공숙 ☎062)227-4565

**고전방**  
동구 금동 34-2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토담**  
광산구 비아소방서와 중흥파크사이  
병어조림, 갈치조림, 아구찜, 흥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  
대표 김광수 ☎062)954-1333

**똥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꾸꾸미, 봉장어, 사브사브,  
돌판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송하한정식**  
동구 금동로 2가 10번지  
청국장, 한정식, 백반전문  
☎062)225-9278

**보성존제산일월사포교원**  
북구 두암동 561-5호플러스건너편  
광주은행건물 4층  
인해, 풍수, 사주연구사 연구원  
원장 이성호 ☎010-8278-0030